

국군광주병원 작전의 진짜 목적은 505보안부대 확보였다

〈계엄군 지휘부〉



김희승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
5월의 진실을 찾아서

(9) 22일 국군광주병원 확보 작전

계엄군은 도청 앞 집단 발포 이후 5월 21일 17시 경 광주 시내에서 철수했다. 신군부는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가 광주 이외의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가로막기 위하여 시내에서 철수한 병력을 광주시 외곽에 재배치하고, 외부로 통하는 모든 도로를 차단했다. 계엄군의 봉쇄 작전은 5월 27일 도청 탈환 작전을 전개하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봉쇄 작전과정에서 계엄군이 시내로 재진입한 것은 5월 22일 국군광주병원 확보 작전이 유일하다. 군은 당시 국군광주병원 확보 작전의 목적을 '군부대 요원 및 민간 부상자 치료'라는 인도주의적 이유를 내세웠다. 그러나 군의 작전과정에서 병원 인근에 거주하던 이매실(여, 사망당시 68세) 씨 등 8명의 시민이 계엄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인도주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작전과 그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희생이라고 알려져 왔던 국군광주병원 확보 작전의 진실을 군 기록을 통해 새롭게 규명하고자 한다.

◇국군광주병원 확보 작전에 관한 신군부의 주장=1980년 5월 22일 17시 50분, 20사단 62연대 2대대는 국군광주병원을 확보했다. 전차로 선두로 3개 제대로 편성된 전격부대는 작전을 시작한 지 50여 분만에 작전을 완료했다. 국군광주병원 확보작전을 전개한 20사단 전투상보에 따르면(문서 1) 당시 작전은 부상자들의 병원 후송이 어려워진 여건에서 '군 부대 요원 및 민간 부상자 치료를 위한 목적'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20사단 전투상보를 제외하고 당시 신군부의 공식 발표와 군 기록 어디에도 부상자의 병원 후송이 위협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다. 만약 20사단 전투상보의 내용처럼 부상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작전이 필요했다면 관련 상황이 다른 군 기록에서도 확인되어야 한다.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상황 일지나 첩보 보고에는 이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 내용은 군 기록에 없다는 것은 그러한 위협 사실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당시 군 부상병들은 대부분 헬기를 이용하여 국군광주병원으로 후송했다. 따라서 시민들이 국군광주병원 인근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부상병의 후송과 치료에 지장을 초래할 수는 없었다. 더구나 시민들도 국군광주병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병원에 위협을 가하거나 위협을 할 상황도 아니었다.

◇국군광주병원 확보 작전의 숨겨진 의도(505보안부대 확보 작전)=국군광주병원 확보 작전이 실시된 5월 22일의 경우 부상자 후송이나 병원 안전에 아무런 위협요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을 사상하고 일부 군인의 희생까지 감수하면서 군이 무리하게 작전을 전개한 이유는 무엇일까?

국군광주병원 확보 작전의 진짜 목적은 505보안부대 확보 작전이었다. 신군부의 기존의 주장은 505보안부대 확보 작전을 은폐하기 위한 표면적 이유에 불과했다. 계엄군의 도청 철수 이후 군의 주둔지역이 도심 외곽과 상무대에 위치하면서 국군광주병원과 505보안부대는 시민 장악 지역에 위치하게 되었다.

아래 그림 2에서 확인되듯이 국군광주병원을 확보함으로써 군은 병원에서 상무대에 이르는 지역을 다시 장악하게 되었다. 또한 상무대와 국군광주병원 사이에 위치한 505보안부대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었다. 반면에 시민들은 양동시장 인근 돌고개까지 밀려났다.

신군부는 5월 21일 계엄군의 철수 과정에서 505보안부대의 안전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했다. 이러한 사실은 전교사 작전 일지와 보안사 첩보 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교사 작전 일지에 따르면 군은 5월 22일 0시 15분 도로차단 작전을 전개했다. 문서 3과 같이 5월 22일 도로차단 작전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보안부대 앞에 대화구 및 벽을 설치했다'는 내용이다. 505보안부대에 대한 방어 조치로서 대화구를 설치한 것이다.

대화구는 전차나 차량의 이동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강력한 폭발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후방지역 작전에서 실제 설치하는 경우는 드물다. 더구나 민간인 거주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없을뿐더러 설치해서도 안 되는 대량 살상 무기이다. 대화구가 대량 살상 무기라는 사실은 군 기록에서 확인된다.

5·18왜곡조작인 511연구위원회는 1988년 국회 광주정문회를 앞두고 군 기록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만한 군 기록



5·18 사적지인 광주 서구 옛 국군통합병원. 1980년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해 남아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군·일반인 부상자 치료 내세우지만
신군부 발표·군 기록 어디에도
부상자 안전 위협받은 사실 없어
도로차단 대량살상 무기 대화구 설치
시민 8명 계엄군 총격에 사망

신군부가 심혈 기울인 505보안부대
5·18에서의 역할 전면 재조사해야

을 미리 삭제하고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군 기록 검토과정에서 광주와 화순을 잇는 도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화순 너릿재에 대화구를 설치한 내용을 발견했다.

화순 너릿재 작전을 통솔한 지휘관의 체증수기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511연구위원회는 문서 4처럼 '도로 대화구는 대량 살상 및 파괴 수단임으로 도로 대화구를 차단물로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 이렇듯 군 스스로도 대량 살상 무기로 간주하는 대화구를 보안부대 앞에 설치한 것은 그만큼 505보안부대의 안전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했다는 반증이다.

신군부가 505보안부대의 안전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했다는 사실은 보안사의 5월 21일 첩보 보고에서도 확인된다. 5월 21일 17:15분 첩보 상황에 따르면 문서 5와 같이 '20사단장 책임하에 자체 계획 수립 시행 예정인바, 담당 구역은 국군광주병원을 중심으로 전교사, 사월산 탄약고까지의 지역임(505보안부대도 포함)'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보안사 첩보 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신군부는 5월 21일 계엄군이 시내에서 철수한 직후부터 505보안부대를 포함한 인근 지역의 안전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그리고 철수한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국군광주병원 확보라는 명분을 앞세워 505보안부대 확보작전을 전격적으로 전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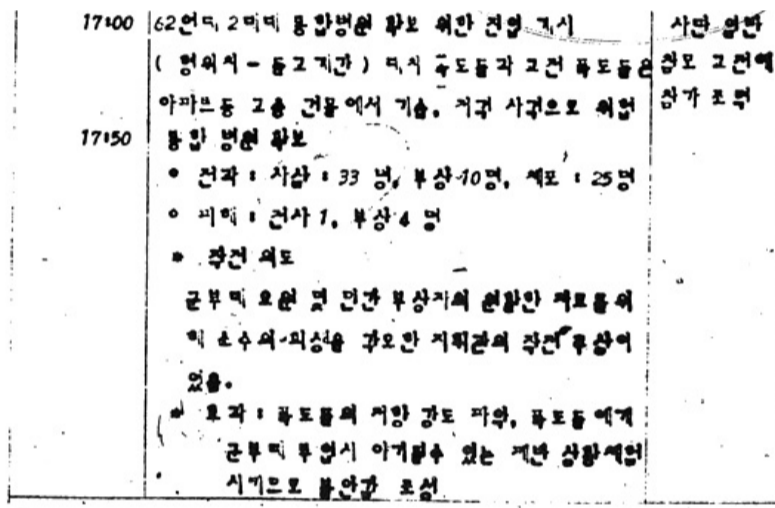
당시의 작전은 보안사가 깊숙하게 개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국군광주병원 확보작전에 투입된 20사단 62연대 이보 중대장은 1995년 특검 조사과정에서 "당시 보안사에서 보안처장인가 하는 준장이 내려와서 20사단장에게 빨리 국군광주병원 확보 작전을 실시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보안사 소속의 장성이 20사단장에게 국군광주병원 확보 작전을 신속하게 실시하라고 압력을 행사할 이유는 505보안부대의 확보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

계엄군의 5월 22일 작전은 표면적으로는 국군광주병원 확보를 거론하고 있지만 작전의 실제 목표는 505보안부대였다. 앞서 살펴봤듯이 부상자의 후송이나 국군광주병원의 안전이 위협을 받았다는 사실은 없다. 국군광주병원이 긴급한 위협에 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국군광주병원 확보 작전을 서둘러 실시한 것은 505보안부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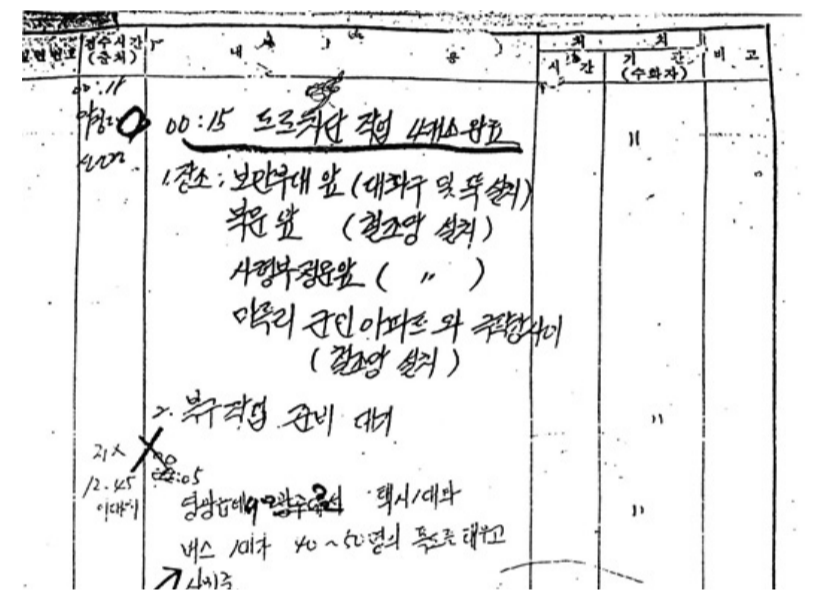
5월 22일 국군광주병원 확보 작전의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군 작전에 관한 신군부의 주장과 논리가 의심없이 그대로 수용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군부의 의도에 맞게 군 작전의 은폐와 왜곡이 발생한다. 5월 22일 군의 작전에서 국군광주병원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진짜 작전 목적인 505보안부대는 관심의 영역에서 사라지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늦었지만 지금까지도 505보안부대의 역할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hesal@hanmail.net

* 다음 원고는 12월26일 게재됩니다.



문서 1. 20사단 전투상보 (병원작전 상황일지)



문서 3. 보안부대 앞 대화구 설치 (전교사 작전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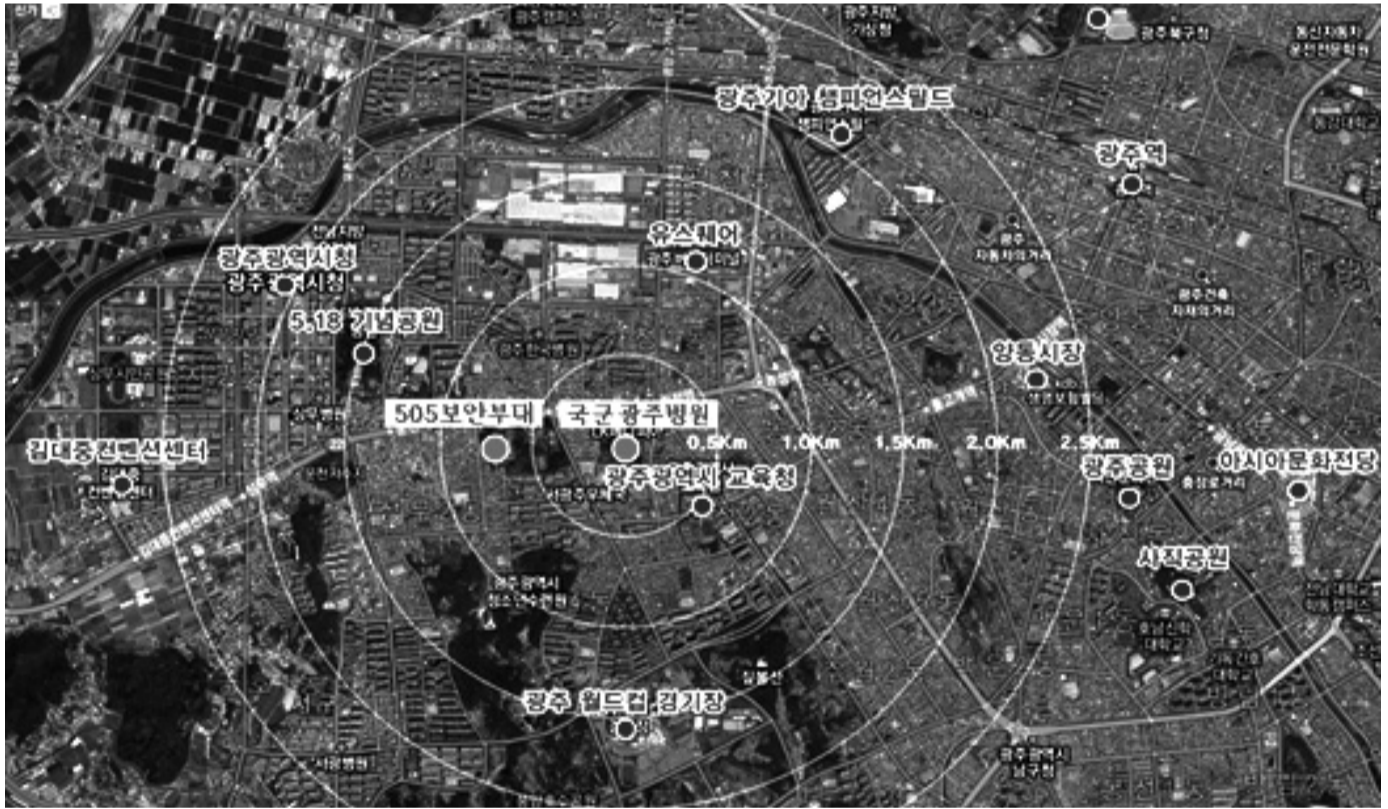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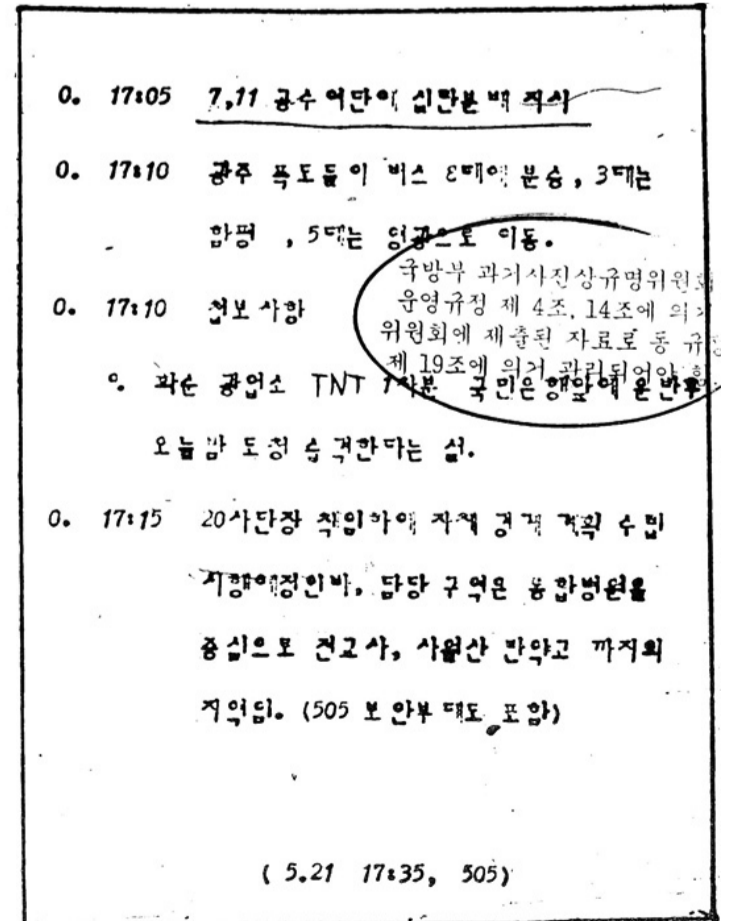


그림 2. 국군 광주병원과 505보안부대 옛터 지도.

문서명	수기	문	제	질	문제	원인	조	척	비	고
문서 1	17:00	62연대 2대대 동양병원 확보 위한 전격 작전	목적	62연대 2대대 동양병원 확보	목적	62연대 2대대 동양병원 확보	목적	62연대 2대대 동양병원 확보	목적	62연대 2대대 동양병원 확보

문서 4. 체증수기 수정 지시 (대화구 내용. 511연구위)



문서 5. 보안사 첩보보고 (5월 21일)